

증산의 수행체계에 있어서 성·경의 의미*

윤 기 봉

대진대학교

〈요 약〉

본 논문은 증산의 수행체계에 있어서 성과 경이 지니는 의미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증산의 수행체계 안에서의 성·경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유학, 특히 율곡의 성과 퇴계의 경을 살펴보았으며, 이와 비교를 통해 성과 경의 의미가 증산에 있어서 어떻게 승화되는지를 고찰하였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증산이 제시한 성·경 수양법이 수양주체의 실천지향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음을 밝힘과 아울러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증산이 제시하는 수양법은 종교적 신앙을 바탕으로 하며, 증산의 수행체계에 있어 성·경의 실천은 자아완성이라는 궁극점을 향해 나아간다. 이는 완성된 자아, 즉 ‘인존’이라는 새로운 인간 모델과 ‘도통진경’이라는 이상적 세상을 목적으로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수양주체의 자발적인 수양을 통해서만이 도달 가능한 것으로 수양주체로서의 인간 역할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핵심 주제어: 성(誠), 경(敬), 인존(人尊), 수양주체, 도통진경

I. 서 론

종교는 보편적 가치로서 구원의 이상을 추구하는 속성을 내재하고 있다. 아울러 구체적 인 역사의 현장에서 직면하는 구체적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특수한 가치 체계도 종교 안에는 내재되어 있다.

* 이 논문은 2008학년도 대진대학교 학술 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중산이 제시하는 이상적 인간인 ‘인존’과 이상향으로서의 ‘도통진경’의 개념 또한 이러한 보편적인 인간의 감정을 근거해서 나타나는 사상적 총화일 것이다. 이러한 사상적 지향점을 바탕으로 중산이 강조하는 것은 수양주체로서의 인간이 반드시 지녀야 하는 성·경의 체득에 있다.

본 논문은 중산의 수행체계에 있어서 성과 경이 지니는 의미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과 경은 이상적 인간상인 인존으로 나아가기 위해 요구되는 수양법으로 수양주체인 인간이 수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올바른 자세를 의미한다. 이는 중산의 인간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이 궁극자에게로 나아가야 하는 종교철학적 가치를 수양론에서 찾고자 함이다. 그러므로 성과 경을 살펴봄으로써 수양의 목적이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결과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중산의 수행체계 안에서의 성·경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유학, 특히 한국 유학에서 보이는 성·경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며, 이와 비교를 통하여 성과 경의 의미가 중산에 있어서 어떻게 승화되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중산이 제시한 성·경의 수행법이 수양주체의 실천지향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음을 밝힘과 아울러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한국 유학에서의 성(誠)·경(敬) 수양론

1. 율곡의 성사상

유학사상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성사상이 한국에 수용된 것은 유학의 전래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¹⁾

유학의 궁극적 목표가 천인합일인 성에 이르는 것이라고 할 때, 그것은 본질적으로 근원적 진리(誠)와 나(誠之者)가 하나됨의 문제이므로 그것은 결국 실천적 수기지학을 벗어날 수가 없다. 이와 같은 성사상을 한국적 정신으로 투영해 낸 사람이 율곡이다.

율곡은 주자의 성리학체계를 학문의 구심점으로 삼는다. 율곡은 성(誠)을 천(天)과 사람의 근원과 본체로서 파악하고 있으며, 이것은 초월적 天을 인간에 내재화하여 파악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율곡은 성을 모든 활동의 원동력이요 노력의 근원이 되는 것이라고 하여 “학자는 반드시 성심으로 도(道)에 향하고 세속의 일로써 자기의 뜻을 흔들리지 않게 되어야만 학문의

1) 『中庸』의 중심사상을 이루고 있는 성은 그 자체 또한 유학의 본질이기 때문에 성사상의 전개는 곧 유학의 전개라 볼 수 있다.

기초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²⁾하여 학문은 성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또한 “성(誠)하게 한다는 것은 스스로 수양하는 도리”³⁾라 하여 성을 수양의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다. 율곡은 성에 바탕하여 수기와 학문함을 말하였으며 이에 성으로서 입지(立志)를 해야 한다고 하여 철저한 자기수양을 교육적 의미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율곡 수양론에 있어서 성은 어떻게 설명되는가. 율곡은 『성약집요(聖學輯要)』에서

「신이 살피건대, 성이란 것은 하늘의 실리요 마음의 본체인데 사람이 그 본심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은 사사가 있어 가려졌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경을 주체로 삼아 사사를 없애 버리면 본체는 곧 완전하게 됩니다. 경은 용공(用功)에 긴요한 것이요, 성은 수공(收功)하는 것은 밑바닥이므로 경에서 성에 이르게 됩니다.」⁴⁾

라고 하여 그는 성을 천의 실리, 심의 본체라 하고 있으며, 성·경과 관련하여 경을 공부의 요령으로, 성을 공부의 효과로 보았다.

율곡에 의하면 성은 지(志)와 리(理)와 질(質)은 물론 궁리·거경·역행의 근원적인 동력이 되는 동시에 수기치인과 성학종시(聖學終始)의 요체가 된다. 성은 궁행지본(窮行之本)이요, 성인지본(聖人之本)이라 아니할 수 없다.⁵⁾

한편, 율곡은 격물치지(格物致知)와 성의정심(誠意正心)을 통해 성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격물치지는 지식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유교 철학의 인식론에 해당되고, 성의정심은 덕성을 함양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치론의 문제에 속한다고 한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볼때 격치와 성정이 모두 성리학의 가치론(수양론)에 해당된다.⁶⁾

그러나 율곡은 격물치지와 성의정심의 문제를 나누어 생각하지 않는다.

「무릇 생각한다는 것은 격물치지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른바 힘쓴다는 것은 성의정심이 아니고 무엇인가? 사물에 접하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이미 생각하여 얻었더라도, 내일 사물에 접하면 또한 생각을 면할 수 없으니, 그렇다면 격물치지의 공부를 다 마쳤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미 힘써서 중도에 합하였더라도, 내일 또한 힘쓰는 것을 면할 수 없으니, 그렇다면 성의정심의 공부를 다 마쳤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⁷⁾

2) 『栗谷全書』, 卷27, 『擊蒙要訣』: 學者必誠心向道 不以世俗雜事亂 其志然後爲學基土止.

3) 『栗谷全書』, 卷31, 『聖學輯要』: 誠其意者 自修之道也.

4) 『栗谷全書』, 卷20, 『聖學輯要』: 臣接 誠者 天之實理 心之本體 人不能復其本心者 由有私 邪爲之蔽也 以敬爲主 盡去私邪 則本體乃全 敬是用功要 誠是收功之也 由敬而至於誠矣.

5) 손인수, 『율곡사상의 현대적 공간』, (서울: 다문, 1996), 185쪽.

6) 배종호, 『한국 유학의 철학적 전개』,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5), 270쪽.

7) 『栗谷全書』, 卷9, 『答成浩原』: 夫所謂思者 非格致而何 所謂勉者 非正而何. 事物之來 未能不思 而必思之. 今日既思而得矣 明日事物之來 又不免於思 則可謂格致之功已畢乎. 今日既勉而中矣 明日又不免於勉 則可謂誠正之功已畢乎.

성은 격물치지의 방법적 원리로서 ‘진실하여 거짓이 없는 것’ 또는 ‘정성’의 의미로 많이 사용된다. 이러한 격물치지의 공부는 성의정심의 공부로 나아간다. 격물치지 공부가지(知)의 문제라면, 성의정심 공부는 행(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율곡은 격물치지와 성의정심을 버리고 나라를 다스리려 한다면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⁸⁾ 치국평천하를 이루기 위해서는 격물치지와 함께 성의정심의 공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율곡에 의하면 격물치지를 하지 않으면 지혜가 이치에 밝지 못하고 성의정심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이치에 따르지 못하며, 지혜가 이치에 밝지 못하면 사정(邪正)과 시비(是非)의 분별을 못할 것이며, 마음이 이치를 따르지 않게 되면 어진 이를 써서 백성을 편케 하는 방법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⁹⁾

2. 퇴계의 경사상

퇴계는 성보다 경을 더 중시한다. 퇴계에 있어서 경은 학문의 궁극처에서 획득되는 것이다. 경을 통해서 학문하는 역정이 시작되고 경의 확보와 구현을 통해서 학문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퇴계에 있어서는 경은 바로 『중용』에서의 성과 같은 기능을 담당한다. 그렇다면 실제로 경이란 무엇인가. 퇴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람이 학문을 함에 있어서는 유사(有事)·무사(無事)·유의(有意)·무의(無意)를 막론하고 오로지 경을 위주로 하여 움직일 때나 고요할 때나 그것을 잃지 않으면 생각이 아직 싹트기 전에는 심체(心體)가 허명(虛明)하고 본령이 아주 순수하며 생각이 이미 발함에 이르러서는 의리가 밝게 드러나고 물욕이 퇴정(退聽)하여 분란의 위험이 점차 감소되고 그러한 순간들이 축적되어 학문의 목적을 이루게 된다.¹⁰⁾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경은 학문의 완성된 형태가 아니라 학문의 완성을 가능하게 가 능태로서 작용한다. 경이 뒷받침됨으로써 학문은 궁극적으로 완성될 수 있는 것이다. 학문의 완성이 경을 바탕으로 할 때 가능하여지는 까닭에 경은 학문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며 학문하는 목적이 경의 심성을 유지·보전하는데 있다고 해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8) 『栗谷全書』, 卷7, 「陳時弊疏(壬午)」: 雖然欲捨格致誠正 而求治國者 終無是理.

9) 『栗谷全書』, 卷7, 「陳時弊疏(壬午)」: 何則 不格致 則智不燭理 不誠正 則心不循理 不燭理 則無以辨 邪正是非之分不循理 即無以施任賢安民之術 ---.

10) 『退溪全書』卷5: “人之爲學 勿論有事無事有意無意 惟當敬以爲主 而動靜不失 則當其思慮未萌也 心體虛明 本領深純 及其思慮已發也 義理昭著 物欲退聽 粉擾之患漸減 分數積而至於有成.”

그렇다면 퇴계는 왜 굳이 경 개념을 고집하는가.

『성학십도(聖學十圖)』에 있어서의 경의 위치를 통해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경은 위와 아래를 다 통한 것이니 공부를 시작하고 그 공효(功效)를 거둬에 있어서 모두 항상 여기에 종사하여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자(朱子)의 말도 그와 같으니 지금 이 십도(十圖)에도 모두 경으로 주(主)를 삼은 것입니다.’¹¹⁾

경으로부터 학문이 시작되고 경으로부터 학문이 끝난다는 것을 통하여 이러한 경이 『성학십도』 모두를 일관하고 있는 주된 개념임을 밝히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퇴계는 성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실천적 원리를 경이라 본 것이다.

그렇다면 경의 실천방법은 무엇인가.

퇴계에 의해 제시된 경의 실천에는 지경공부(持敬工夫)를 들 수 있는 바, 지경의 방법으로 정제엄숙(整齊嚴肅)을 제시한다. 퇴계는 ‘고인(故人)에게 들은 즉 형체도 없고 형상도 없는 심을 가지고자 하면 반드시 이를 근거로해서 지킬 수 있는 곳으로부터 공부를 더 해 나간다고 하였으니 안자(顔子)의 사물(四勿)¹²⁾, 증자(曾子)의 삼귀(三貴)¹³⁾같은 것이 다.’¹⁴⁾라고 하여, 정제엄숙의 구체적 실천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퇴계의 경이란 존양성찰(存養省察)로 요약될 수 있다.

‘배우는 자는 진실로 지경(持敬)에 한결같이서 천리와 인욕에 어둡지 아니하고 더욱 더 삼삼함을 다하여 미발시(未發時)에는 천리를 존양하고 이발시(已發時)에는 기미를 성찰하는 습성이 익숙해야 할 것이다.’¹⁵⁾

경은 동정(動靜)의 어느 한 곳에 치우쳐 있지 않다. 동정을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마음이 발하기 전에는 주경(主敬)하여 존양에 힘쓰고, 마음이 발한 후에도 주경(主敬)하여 성찰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경공부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미발·이발에 관계없이 경공부는 행해져야 하는 것이며, 경공부를 통한 존양성찰의 공부는 동정을 일관해서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이는 경의 수양법에 있어서 존양성찰 이상은 없다고 보는 것으로 인간의 욕망을 규제하고 그 마음에 내재해 있는 인간 본연의 마음인 사단의 덕을 확충함으로써 성인이 될 수 있는 원리를 경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11) 『退溪全書』, 卷1, 『聖學十圖』, 第四大學圖: 敬者 又撤上撤下 著工收效 皆常從事而勿失者也 故朱子之說如彼而今茲十圖皆以敬爲主焉.

12) 『論語』, 『顏淵』: 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

13) 『論語』, 『泰伯』: 君子所貴乎道者三 動容貌斯遠暴慢矣 正顏色斯近信矣 出辭氣斯遠鄙倍矣.

14) 『退溪全書』, 卷29, 『答金而精』: 聞之古人欲存無形影之心 必自其有形影可據 守處加工 顏曾之四勿三貴是也.

15) 『退溪全書』, 卷1, 『進聖學十圖筭』, 第六心統性情圖說: 學者誠能一於持敬 不昧理欲 尤致謹於此 未發而有養之功深 已發而省察之習熟.

Ⅲ. 증산의 성·경 수양법

1. 성

증산의 수행체계에서 성은 전통유학에서 일컬어 왔던 성과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어떤 절대적 존재앞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유한자의 태도를 뜻하는 소박한 종교적 자세를 의미한다.

『대순진리회요람』은 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도가 곧 나요, 내가 곧 도라는 경지에서 심령을 통일하여 만화도제에 이바지 할지니 마음은 일신을 주관하며 전체를 통솔 이용하니, 그러므로 일신을 생각하고 염려하고 움직이고 가만히 있게 하는 것은 오직 마음에 있는 바라 모든 것이 마음에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것이니 정성이란 늘 끊임이 없이 조밀하고 틈과 쉽 없이 오직 부족함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룸이다.」¹⁶⁾

성을 인간의 마음을 중심으로 설명하면서 그 마음이 근본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조밀하고 틈이 없는 상태를 지칭하고 있다. 마음과 몸의 관계에서 마음은 몸을 통솔하는 주된 기관이며, 이러한 마음은 인간존재의 중심이면서 또한 천지의 중심이기도 하다.¹⁷⁾ 따라서 성이란 이러한 마음의 중추작용을 전일(專一)하게 하여 원하는 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끊임없는 심적상태임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대순지침』에서는 “성은 남의 간여도 증감도 견제도 할 수 없고, 오직 스스로의 마음에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진다.”¹⁸⁾고 하고 있으며, 또한 “천도의 운행이 차착(差錯)이 없으므로 남이 모름에 께의치 말아야 한다.”¹⁹⁾고 하고 있다. 성이라 함은 마음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모든 일을 남의 뜻으로 돌리지 않고 늘 자신의 부족함을 두려워하는 주체적인 인간의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은 정성스런 마음으로 표현되어神明과의 감통으로 이어지고 있다.

상제의 신성하심이 하운동(夏雲洞)에도 알려졌도다. 이 곳에 이 선경(李善慶)이란 자의 빙모가 살고 있었도다. 상제께서 주인을 찾고 「그대의 아내가 四十九일동안 정성을 드릴 수 있느냐를 잘 상의하라」분부하시니라. 주인은 명을 받은 대로 아내와 상의하니 아내도 일찍부터 상제의 신성하심을 들은 바가 있어 굳게 결심하고 허락하시니라. 상제께서 다시 주인에게 어김없는 다짐을 받게 하신 뒤에 공사를 보셨도다. 그 여인은 날마다 머리를 빗고 목욕제계한 뒤에 떡 한 시루씩 찌서

16) 『대순진리회요람』, (서울: 대순진리회교무부, 1969), 16쪽.

17) 『전경』교운, 1장66절, 『天地之中央心也 故東西南北身依於心』.

18) 『대순지침』, 41쪽 참조.

19) 『대순지침』, 51쪽 참조.

공사 일에 준비하니라. 이렇게 여러날을 거듭하니 아내가 심히 괴로와하여 불평을 품었도다. 이날 한 짐 나무를 다 때어도 떡이 익지 않아 아내가 매우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노라니 상제께서 주인을 불러 「그대 아내는 성심이 풀려서 떡이 익지 않아 매우 걱정하고 있으니 내 앞에 와서 사과하게 하라. 나는 용서하고자 하나 신명들이 듣지 아니하는도다」고 이르시니라. 주인이 아내에게 이 분부를 전하니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사랑방에 나와 상제께 사과하고 부엌에 들어가서 시루를 열어보니 떡이 잘 익어 있었도다. 부인은 이로부터 한결같이 정성을 드려 四十九일을 마치니 상제께서 친히 부엌에 들어가서서 그 정성을 치하하시므로 부인은 정성의 부족을 송구히 여기니 상제께서 부인을 위로하고 그대의 성심이 신명에게 사무쳤으니 오색 채운이 달을 끼고있는 그 증거를 보라고 하셨도다.²⁰⁾

인간의 지극한 정성은 신명이 지니고 있는 본질과 서로 통하고 있는 것으로 지공무사한 성의 실천이 신명과 서로 통할 수 있음을 통해 성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정성(精誠)이란 늘 끊임이 없이 조밀하고 틈과 쉽이 없이 오직 부족함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름이다.”라고 한 것에서 보여지듯이 성이 곧 정성스러운 노력을 뜻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성에는 어떠한 자세가 요구되는가?

그것은 진실한 마음과 일심으로 표현될 수 있다.

먼저, 진실과 관련한 내용 『전경』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제께서 교훈하시기를 「인간은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 분통이 터져 큰 병에 걸리느니라. 이제 난법을 세우고 그 후에 진법을 내리나니 모든 일을 풀어 각자의 자유 의사에 맡기노니 범사에 마음을 바로하라. 사곡한 것은 모든 죄의 근본이요, 진실은 만복의 근원이 되니라.²¹⁾

윗 글에서는 직접적으로 성에 대한 언급은 하고 있지 않으나 성을 ‘진실’의 뜻으로 유추가 가능한 부분이 발견된다. ‘진실은 만복의 근원’이라는 표현 속에는 사람을 대할 때 진실하고 변함없는 태도, 곧 ‘정성스러운’태도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상생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사심없는 정성스런 언사는 결국 만복의 근원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또한 “최 수운의 가사에 『도기장존 사불입(道氣長存邪不入)』이라 하였으나 상제께서는 「진심견수 복선래(眞心堅守福先來)」라 하셨도다.”²²⁾라고 하여 진심을 강조하고 있는 바, 여기서의 진심은 곧 진실한 마음을 말하며 이것이 곧 진정한 성의 내용이 되는 것이다.

‘성이 늘 끊임없는 노력’임을 통해서 일심(一心)과의 관련성도 유추해 볼 수 있다. 일심은 변함없는 자세를 지칭하는데 이러한 마음자세를 수양론적 태도에서 규정한다면 곧 성

20) 『전경』행록, 1장29절.

21) 『전경』교범, 3장24절.

22) 『전경』교범, 2장3절.

의 개념과 상통하게 된다.

이제 범사에 성공이 없음은 한 마음을 가진 자가 없는 까닭이라. 한 마음만을 가지면 안 되는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무슨 일을 대하던지 한 마음을 갖지 못한 것을 한할 것으로다. 안 되리라는 생각을 품지말라.²³⁾

여기서 성은 일심으로 표현되고 있어 변함없는 신앙의 자세를 담고 있으며, 행동함에 있어 언행의 일치와 함께 꾸준한 노력의 태도를 요구하고 있다. 일심을 가지면 안 되는 일이 없음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유혹에 동하지 않는 일심의 자세와 사심을 내세우지 않는 일심의 자세가 요구된다. 일심이 성을 이루기 위한 자세로 표현되는 것이다.

지성(至誠)은 진리의 여륜(如綸)이라 하였다. 성은 늘 끊임없고 조밀하고 틈과 쉽이 없이 오직 부족함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으로 수양주체에게 있어서는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는 한결같은 자세를 의미한다. 이는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이 요란하게 치는 어느 날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가라사대 『뒷날 출세할 때는 어찌 이리할 뿐이리오. 뇌성벽력이 천지를 진동하리라. 잘못 닦은 자는 앉을 자리에 갈 때에 나를 따르지 못하고 옆드려 지리라. 부디 마음을 부지런히 닦고 나를 깊이 생각하라』 하셨도다.”²⁴⁾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양주체는 자신의 마음자세, 즉 인간 자신의 내재적 의지에 바탕을 둔 성의 자세를 견지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진실한 마음으로 성심을 다해서 오직 일심의 자세로 부단한 노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수양주체가 지녀야 하는 수양자세의 근거가 되는 것이 ‘성’이기 때문이다.

2. 경

증산의 수양론에 있어 경은 수행하는 마음의 자세를 외부로 표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순진리회요람』에서 ‘경은 심신의 움직임을 받아 일신상 예의에 알맞게 행하여 나아가는 것을 경이라 한다’고 하였으며, 『대순지침』은 ‘지성봉축(至誠奉祝)에 변함이 없고 양면이 없어야 경인 것’이라 하여 경의 진정한 의미는 표리의 양면이 다르지 않고 일치하는 것이며, 그러한 마음을 지속하여 지성으로 봉축하는 동시에 예의 범절을 갖추어 처신 처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증산에 있어서 경의 특성은 몸과 마음을 일치시켜 기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순지침』은 몸과 마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경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23) 『전경』교범, 2장5절.

24) 『전경』교범, 3장25절.

모든 일이 내심의 소정에 따라 몸으로 표현되는 법이다.²⁵⁾

경은 수양주체가 추구하는 궁극적 경지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요체로서, 근원적으로 몸과 마음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러므로 수양을 통해 변화시키고자 하는 대상 또한 몸과 마음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수양주체는 경을 통하여 도덕을 준수하고 지켜나가며 이를 숭상하고 실천을 함으로써 몸과 마음의 완성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의 실천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가?

경이 의미하는 바의 근원은 종교적 신앙태도에 기인하는 외경의 정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유한한 존재로서의 인간이 초월적 존재인 신적 앞에서 지니는 귀의의 태도가 곧 외경(畏敬)의 정서인 것이다.

「김덕찬이 상제를 대함이 항상 거만하나 상제께서는 개의치 않으시고 도리어 덕찬을 우대하시더니 하루는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공사를 행하실 때 크게 우뢰와 번개를 발하니 덕찬이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피하려 하니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네가 죄 없거늘 어찌 두려워 하느냐」 덕찬이 더욱 황겁하여 벌벌 떨고 땀을 흘리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더니 이후에는 상제를 천신과 같이 공경하고 받들었도다.」²⁶⁾

인간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천지변화를 자유자재로 하는 상제의 권능에 대하여 인간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으로 이 때의 외경은 단순히 두려워함이 아니라 인간으로서는 다다를 수 없는 상황으로의 초월성을 견지한 절대자에 대한 두려움을 말한다. 이러한 외경의 마음을 자각하지 못하면 인간은 스스로 교만을 자초하여 필연적으로 죄를 지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이르게 된다. 결국 경이란 상제와 신 앞에서의 엄숙한 자세를 취함과 함께 외경의 상태로 의미가 확대되는 것이다. 이는 다시 인간에 대한 공경으로 나아가는데, 『전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상제께서 비천한 사람에게도 반드시 존대말을 쓰셨도다. 김 형렬은 자기 머슴 지 남식을 대하실 때마다 존대말을 쓰시는 상제를 대하기에 매우 민망스러워 「이 사람은 저의 머슴이오니 말씀을 낮추시옵소서」하고 청하니라. 이에 상제께서 「그 사람은 그대의 머슴이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시골에서는 어려서부터 습관이 되어 말을 고치기 어려울 것이로되 다른 고을에 가서는 어떤 사람을 대하더라도 다 존경하라. 이후로는 적서의 명분과 반상의 구별이 없느니라」 일러주셨도다.²⁷⁾

타인을 공경하는 경의 자세에 신을 향한 외경의 심정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때, 인간 사이의 예의는 반드시 경의 본질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경은 덕을 닦아 경위에 맞게 사람

25) 『대순지침』, 52쪽.

26) 『전경』교운, 1장23절.

27) 『전경』교범, 1장10절.

을 올바르게 대접하는 것이다.²⁸⁾ 수덕(修德)을 통한 경위에 맞는 바른 언행은 자신은 물론 타인으로 하여금 바른 언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위에 맞지 않는 행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경위에 맞는 예법의 실천을 통하여 과거에 착을 지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풀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경하는 경의 자세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서로에 대한 예로써 표현되어야 한다. 경을 실천한다 함은 외면적으로 예의에 합당하게 행위하는 것을 전제하며, 이러한 예의 실천에는 경의 심정이 내재되어있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의 자세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결같은 마음 즉, 항상심을 요구하고 있다.

인간의 복록은 내가 맡았으나 맡겨 줄 곳이 없어 한이로다. 이는 일심을 가진 자가 없는 까닭이라. 일심을 가진 자에게는 지체없이 베풀어주리라.²⁹⁾

일심은 한 마음, 한결같은 마음, 변함없는 본연의 청정한 마음 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러한 일심의 강조를 통하여 인간이기 때문에 직면할 수 밖에 없는 심적 의지의 분열상에 대한 견제와 함께 일의 성사여부가 결국은 인간의 마음에 달려있음을 부각시키는 것 등을 통하여 마음이라는 것이 외부로 표현되어지는 인간의 의지적인 측면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일심을 견지한 상태에서 증산에 대한 외경과 인간에 대한 공경이 바로 경의 진정한 실천자세가 되는 것이다.

IV. 성·경 수양법의 궁극적 지향점

수양론이 지향하는 바는 군자, 성인으로 표현되는 이상적인 인간상의 실현에 있다. 증산에 있어서도 다름 아니다. 증산이 제시한 수행체계인 성·경의 수행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인존’과 ‘인존’이 살아가는 이상적인 세상인 ‘진경’으로 집약된다.

그렇다면 증산에 있어 인간은 어떠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가?

증산은 인간을 ‘선령신들이 육십 평생, 헤아릴 수 없는 공을 쌓아서 하늘로부터 얻어낸 존재’³⁰⁾로 설명하고 있다. 인간은 최소한 선령신, 다시 말해 천계 - 신명계 - 와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존재할 수 있는 관계체이며, 홀로 존재하는 단독자가 아닌 것이다.³¹⁾ 인간은

28) 『전경』교범, 2장20절. 사람들이 예로부터 『길성 소조(吉星所照)』라 하여 길성을 구하러 다니나 길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니라. 때는 해원시대이므로 덕을 닦고 사람을 올바르게 대우하라. 여기서 길성이 빛이 나니 이것이 곧 피난하는 길이니라.

29) 『전경』교범, 2장4절.

30) 『전경』교범, 2장36절 참조.

단순히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세계와 조화 속에서 존재해야 하는 관계체이다. 전체 속에서 존재하는 관계체인 인간은 성·경의 수행과정을 통하여 도통된 인간으로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상제께서 말씀을 계속하시기를 「공자(孔子)는 七十二명만 통예시켰고 석가는 五百명을 통케 하였으나 도통을 얻지 못한 자는 다 원을 품었도다. 나는 마음을 닦은 바에 따라 누구에게나 마음을 밝혀 주리니 상제는 七일이요, 중제는 十四일이요, 하제는 二十一일이면 각기 성도하리니 상등은 만사를 임의로 행하게 되고 중등은 용사에 제한이 있고 하등은 알기만 하고 용사를 뜻대로 못하므로 모든 일을 행하지 못하느니라」 하셨도다.³²⁾

증산은 ‘72’와 ‘500’이라는 구체적인 숫자의 언급과 도통을 ‘누구나 닦은 바에 따라 주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선천에서 일부에게만 주어짐으로 해서 발생했던 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됨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수효의 한계로 인한 포원의 문제를 지닌 기존 도통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마음을 닦은 바에 따라 누구에게나 마음을 밝혀 준다’는 표현을 통해 도통을 얻지 못한 자의 원을 풀어줌과 아울러 금후에는 도통이 날 것을 확약함으로써 선천의 한계 상황을 극복함과 동시에 수도의 정도에 따라 누구나 도통을 이룰 수 있게 된 당위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성·경의 수양을 통해 도달하게 되는 도통의 경지는 인간 스스로 인륜을 바로 행하고 도덕을 밝혀 나갔을 때 가능한 것이며, 도통은 어느 누가 물품을 수수하듯이 주고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후의 차등이 없고 오로지 자기자신의 수도 여하에 달려 있으며,³³⁾ 내 마음을 거울과 같이 닦아서 진실하고 정직한 인간의 본성을 회복했을 때 도통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³⁴⁾

한편, 도통한 인간, 즉 ‘도통군자’는 세속적 지식과 재리에만 빠져있는 인간에서 탈피하여 천·지·인 삼계의 관계맺음 속에서 존재하는 새로운 인간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인존’의 인간상이 그것이다.

증산은 ‘인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라. 마음을 부지런히 하라.³⁵⁾

인간은 천·지의 종속적인 존재가 아니라 천·지·인 삼계의 전체 틀 속에서 주체로서 자리매김 하는 존재가 됨을 밝히고 있다. 이는 곧 개벽과정에서는 인간이 주체적으로 역

31) 윤재근, 『대순사상의 인간형성 이론』,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63쪽.

32) 『전경』교운, 1장34절.

33) 『대순지침』, 37-38쪽.

34) 『대순지침』, 28쪽.

35) 『전경』교범, 2장56절.

할을 담당하게 됨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그래서 증산은 “인간의 마음은 천지보다 크다”³⁶⁾라고 하여 인간의 주체적 역량의 범위가 천지, 운명 등에 좌우되지 않을 정도로 넓혀져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서의 인간이 스스로를 주체적이며 자율적인 삶의 결정자로 규정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인간이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것은

「선천에는 모사(謀事)가 재인(在人)하고 성사(成事)는 재천(在天)이라」 하였으며 이제는 모사는 재천하고 성사는 재인이니라.³⁷⁾

라는 표현을 통해서 나타난다. 모든 것은 인간에 의해 결정되고 발현된다는 것을 통해 인간이 우주의 틀 속에서 주체로서 역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도통을 이룬 군자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떠한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가?

도통을 이룬 군자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이상적인 세계로서 ‘도통진경’으로 규정할 수 있는 바, 『전경』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후천에는 사람마다 불로불사하여 장생을 얻으며 궤함을 열면 옷과 밥이 나오며 만국이 화평하여 시기 질투와 전쟁이 끊어지리라.³⁸⁾

후천에는 또 천하가 한 집안이 되어 위무와 형벌을 쓰지 않고도 조화로써 창생을 범리에 맞도록 다스리리라. 벼슬하는 자는 화권이 열려 분에 넘치는 법이 없고 백성은 원율과 탐음의 모든 번뇌가 없을 것이며 병들어 괴롭고 죽어 장사지내는 것을 면하여 불로불사하며 빈부의 차별이 없고 마음대로 왕래하고 하늘이 낮아서 오르고 내리는 것이 뜻대로 되며 지혜가 밝아져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시방 세계에 통달하고 세상에 수·화·풍(水火風)의 삼재가 없어져서 상서가 무르녹는 지상 선경으로 화하리라.³⁹⁾

위의 내용은 앞으로 다가올 후천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다방면에 서의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천하가 한 집안이 된다는 것은 인류문화의 통일적인 양상을 통한 단일문화권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속에서 조화가 이루어지는 정치적 이상과 빈부의 차별이 없어지는 경제적 이상이 실현되며, 수화풍의 삼재가 없어져서 상서가 무르녹는 이상적인 자연환경의 모습이 도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모든 분야의 진리가 하나로 어우러진 이상세계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과거에 인간이 희망했지만 이상으로 그쳤던 그러한 것이 아니라 후선선경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현 인류에게 다가

36) 『전경』행록, 3장44절 참조.

37) 『전경』교범, 3장35절.

38) 『전경』, 예시 80절.

39) 『전경』, 예시 81절.

오는 구체적인 현실개념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V. 결 론

본 논문이 목적하였던 바는 증산이 제시하는 성·경의 수양법을 통하여 성·경이 지니는 종교적 성격을 부각시켜 수도의 요체로 삼고 있는 이유를 밝히는 데 있었다.

증산의 수행체계에서 성과 경은 수양주체가 지녀야 하는 규범에 해당한다. 이러한 성과 경은 동양 古來의 수양론적 개념에 입각한 용어이다. 특히 중국유학이나 한국유학을 살펴 보면, 성에 본질적 내지 목적적 가치를 두고 경에 그 실현을 위한 실천적 내지 수단적 가치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성과 경을 통해서 이상적 인간이 되고자 하는 목적과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증산이 제시하는 수양법은 종교적 신앙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므로 성·경은 수양주체가 반드시 몸에 갖추어야 하는 필수적인 자세로 규정된다. 수행에 있어 실천적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성·경의 중요성은 “복록성경신 수명성경신 지기금지원위대강(福祿誠敬信 壽命誠敬信 至氣今至願爲大降)”⁴⁰⁾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복록과 수명이 모두 성·경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성·경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시 “천지성경신(天地誠敬信)”⁴¹⁾이라 하여 천지가 성·경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아간다. 수양이 극점에 달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진리 그 자체인 것이다.

증산의 수행체계에 있어 성·경의 실천은 자아완성이라는 궁극점을 향해 나아간다. 이는 완성된 자아, 즉 ‘인존’이라는 새로운 인간 모델과 ‘도통진경’이라는 이상적 세상을 목적으로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끔 인간은 이상세계만을 추구한 나머지 현실을 무시하거나 현실의 삶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경우가 목격된다. 이상세계는 현실의 삶에 충실하고 적극적으로 임할 때, 가능한 세계이다. 이는 이상세계의 추구하고 현실세계에 대한 적극적인 삶이 조화를 이룰 때, ‘인존’과 ‘도통진경’이라는 이상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으로 인간의 수양을 통해서 만이 도달 가능한 경지임을 말하고 있다. 수양주체로서의 인간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증산의 성·경 수양법은 심·신의 균형있는 발전과 신·인의 조화를 통한 심(心)·신(身)·신(神)이 균형을 이룬 전인(全人)적인 인간완성을 목표로 한다. 이는 “인간의 마음은 천지보다 크다”⁴²⁾라는 표현에서 보여지듯 전체구조

40) 『전경』교운, 1장30절.

41) 『전경』교운, 1장66절.

42) 『전경』행록, 3장44절.

속에서 주체로서 역할하는 인간 존재가 자칫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인격형성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궁극적으로 전인적 인간완성을 지향하는 증산의 성·경 수양법은 한 측면만을 고집하는 인간에 대한 편견을 지양하고 다양한 측면에 대한 접근을 통하여 균형있는 인간완성을 이룬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앞서서도 살펴보았듯이, 성·경의 내용이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과 관계되며, 스스로가 잘못을 뉘우치고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는 자율에 입각한 방법을 통해 누군가의 강요가 아닌 ‘스스로의 자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도 그 가치를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는 ‘전인적 인간 완성’의 구현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인간의 역할을 부각시키고 있는 증산의 성·경 수양법은 현대의 종교교육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참고문헌

『論語』

『栗谷全書』

『전경』

『朱子大全』

『中庸』

『退溪全書』

금장태, 『한국유학의 탐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김홍철, 『증산교사상연구』, 익산: 원광대학교 출판국, 2000.

대순종학교재연구회, 『대순사상의 이해』, 포천: 대진대학교 출판부, 1998.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지침』, 1984.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진리회요람』, 1969.

류병덕, 『근현대 한국 종교사상연구』, 마당기획, 2000.

배종호, 『한국 유학의 철학적 전개』,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5.

손인수, 『율곡사상의 현대적 공간』, 서울: 다문, 1996.

윤이흠, 『한국종교연구』 I, 서울: 집문당, 1986.

황선명, 『조선조 종교사회사 연구』, 서울: 일지사, 1992.

황선희, 『한국근대사상과 민족운동』 I, 서울: 혜안, 1996.

황준연, 『율곡철학의 이해』, 서울: 서광사, 1995.

오하마 아키라 / 이형성 역, 『범주로 보는 주자학』, 서울: 예문서원, 1997.

금장태, 「퇴계의 수양론과 심학도의 해석」, 퇴계학보 제42집, 1984.

김태영, 「퇴·율 성경사상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김영주, 「대순사상의 지상신선실현과 수행실천에 관한 연구」, 도교학연구 제21집, 2007.

김재천, 「삼요체의 실천적 의미 소고」, 대순사상논총 제12집, 2001.

이상익, 「성·경론의 존재론적 기초」, 동양철학연구 제10호, 1989.

유승종, 「수도 방법으로서의 경에 대한 소고」, 대순사상논총 제10집, 2000.

윤기봉, 「한국 신종교의 이상적 인간관」, 종교교육학연구 제22권, 2006.

_____, 「궁극적 가치추구와 지상천국의미 비교」, 대순사상논총 제15집, 2002.

_____, 「종교수도론 안에서의 삼요체 의미구조」, 대순사상논총 제9집, 2000.

_____, 「종교적 이상세계와 도통진경」, 대순사상논총 제5집, 1998.

윤재근, 「대순사상의 종교교육이론」, 종교교육학연구 제24권, 2007.

_____, 「대순사상의 인간형성 이론」,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장숙필, 「율곡 이이의 성학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장승구, 「퇴계의 향내적 철학과 다산의 향외적 철학의 비교」, 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94.

원고접수: 2008년 11월 30일 1차심사: 12월 11일 게재승인일: 12월 16일

연구자 소개: 윤기봉(尹起鳳)

- ① 전공: 인도철학, 종교학
 - ② 관심영역: 인도철학, 한국신종교
 - ③ 주요논저: <불교권화사상의 한국적 전개와 대순사상>, <근대에 있어서 한국종교의 개혁사상—대순진리회를 중심으로>, <대순진리회의 의례와 믿음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한국 신종교의 이상적 인간관>
 - ④ E-mail: yungb@daejin.ac.kr
-

Abstract

**On the Meaning of ‘Sincerity’(誠: Cheng) and ‘Reverent Seriousness’(敬: jing) in its System of Self-Cultivation
Accomplished by Jeung-San**

Yun, Gibong

Daejin University

This study aims at giving light on the meaning of ‘Sincerity’(誠: Cheng) and ‘reverent seriousness’(敬: jing) in its system of self-cultivation accomplished by Jeung-San. ‘Sincerity’(誠: Cheng) and ‘reverent seriousness’(敬: jing) should be required necessarily for the mental state of ‘In-jon’(人尊) as an ideal symbol that the thoughts in Jeung-San eventually would achieve, these two concepts mean certain methods for self-cultivation as a right attitude towards it. Regarding these concepts as important ones for the above reason, this paper focuses on what the concrete result could be as the ultimate goal for cultivation.

In order to clear up the meaning of ‘Sincerity’(誠: Cheng) and ‘Reverent seriousness’(敬: jing) in self-cultivation by Jeung-San, this paper not only deals seriously on details with the understanding of Confucious meaning of (誠: Cheng) and (敬: jing), but also make an effort on grasping the various aspects in meaning of (誠: Cheng) and (敬: jing) on several religious thoughts and other pre-existing philosophical ones. In this process of consideration, it studies on how the meaning of these two concepts had been sublimated by means of a comparative viewpoints with presenting resources. Therefore, this studies purposes the clear understanding for its peculiar feature that the methods of ‘Sincerity’(誠: Cheng) and ‘Reverent seriousness’(敬: jing) as self-cultivation would intend to put great emphasis upon the practical inclination with cultivating self for oneself.

Key words : Sincerity(誠: Cheng), Reverent seriousness(敬: jing), In-jon(人尊), Self-cultivation